



##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맞습니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 주변에서 보던 장애인 상징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까요?

## #부자연스럽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표시는 1968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용 리프트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상징을 잘 살펴보면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팔과 다리는 로봇처럼 굳어있고, 손은 부자연스럽게 뻗어 있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움직일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런과 브라이언 글렌니는 기존의 장애인 상징에 대해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장애인 상징을 제안합니다.



## #역동적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독립적인 사람



그들이 제안한 장애인 상징은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상징의 각 부분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1. 머리의 위치: 앞으로 숙여져 있는 머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2. 팔의 각도: 뒤를 향해 있는 팔은 마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 휠체어: 흰색 사선이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운동성을 느껴지게 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은 '엑세서블 아이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 결과 2014년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장애인 상징을 변경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날이란?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고, 비장애인에게에는 장애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정한 날입니다. 평소에 잘 모르던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그런다면 내일부터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 ★우리학교에서는 4월 20일에

## ♣ 학년별 장애인식개선 영상 시청

학년별 장애인식 영상을 시청하고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 ♣ 장애인식개선 퀴즈

퀴즈를 통해 나의 장애인식을 확인해 보아요.

1~2학년: '친구가 되어요'

3~6학년: '우리 의 노래'

영상보고 관련 활동지 풀기

♥개성반에서 준비한 상품이 기다립니다

## 편견 깨는 장애인 유튜버

보이지 않는다고 영상을 못 찍는 것도, 소리가 없다고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 유튜버들을 알아보자.



**달콤살벌농인부부** 청각장애인 부부의 솔직담백한 일상이야기를 담고 있다. 장애인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알리고 싶어서 개설했다고 한다.



**원샷한술** 고등학생 때 희귀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김한술씨의 채널.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타는법,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법 등 비장애인들이 한번쯤 궁금할법한 시각장애인의 일상 이야기를 담아 인기를 끌고 있다.



**'굴러라 구르님'** 뇌성마비 고등학생도 똑같다. 공부 안 하는 건... 뇌성마비 고등학생의 일상 이야기를 담아 인기를 끈 채널. 휠체어로 제주도 여행하기, 휠체어 타고 롯데월드 가기, 휠체어 꾸미기 등 독특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 장애인식개선 한 컷 웹툰



## 자라지 않는다고 꿈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소아 정형외과 교수인 마이클 에인은 항상 의자에 올라가 수술을 집도합니다. 에인 교수는 저신장(왜소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키는 131cm이고, 비장애인보다 짧은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소증 전문 의사'로 저신장 장애인이 기형적인 신체 비율 때문에 겪는 관절 및 연골 질환의 전문가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에인 교수는 학창 시절 작은 키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키는 16살 때 성장을 멈추어 131cm에서 더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에인 교수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모님은 에인 교수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애뿐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노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키가 작다는 것만으로 예외가 될 순 없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저성장 장애인인 그가 의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대 30곳에 원서를 넣었지만, 면접관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그렇게 작은 키와 짧은 팔로 어떻게 의사를 할 수 있겠냐"라며 퇴짜를 놔줍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도전해 알바니 대학교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가 전에 다니던 대학의 야구팀에서 이루수 역할을 해낸 걸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알바니대 의대 면접관 중 굉장한 야구팬 한 분이 계셨어요. 대학 야구팀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한 친구가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고 이야기했더니, '키가 작은 네가 그 친구와 야구를 했을 정도였다면, 너는 충분히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더군요."

이후 의사가 된 에인 교수는 자신과 같은 저신장 장애인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신장 장애인이 겪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저신장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에인 교수는 자신의 장애가 자녀에게 유전되어 저신장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인 교수를 만난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그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라며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왜소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의사라는 꿈을 이루고,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에인 교수. 그는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NO(안된다)' 하지 말고 'GO(된다)'라고 생각하라."  
"장애에 대한 편견에 부딪혀도 자신을 동정하지 말고,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라."  
좌절하고 숨어버리면 끝이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의 체격이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마이클 에인

## 장애인식 개선 영화&도서 추천

### 나의 특별한 형제

신하균, 이광수/114분/한국/12세 관람가

**머리 좀 쓰는 형 x 몸 좀 쓰는 동생!  
세상엔 이런 형제도 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특별한 형제, 동구와 세하. 어느 날 형제의 보금자리인 '책임의 집'이 위기에 놓이고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고 만다.

동구를 수영대회에 출전시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책임의 집'을 지키려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형제 앞에 등장하면서 형제는 새로운 위기를 겪게 되는데...



### 연두의 난독증 극복기

최은영 글, 최정인 그림/바우솔/2020년/

**친구를 얻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하나 얻는 것과 같아요!**

만화 캐릭터를 잘 그리는 연두는 민규의 짝꿍입니다. 연두는 말할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제대로 못 읽고 엉터리로 읽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연두를 자꾸만 놀려 민규는 걱정입니다. 연두를 위해 민규는 작은 용기를 냅니다.

민규는 연두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